

중국 인삼 생산 및 소비현황

작성처 : 베이징aT센터

1 중국 인삼 생산 현황

□ 중국 인삼 생산액 추이

- (인삼생산액) '08년부터 '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1.7% 기록
 - 2008년 75억 원이던 인삼생산액은 2009년 99억 원, 2010년 141억 원, 2011년 196억 원을 거쳐 2012년 227억 원까지 확대

(단위: 억 원)

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
생산액	75.7	99.0	141.3	196.3	227.7
증가율	28.54	30.77	42.72	38.92	15.99

※ Source : 국가통계국

- (영업이익률) 중국 인삼업체들의 평균영업이익률을 '08년 5.9%에서 서서히 높아지다가 7%로 정착되는 모습
 - 2008년 5.9%, 2009년 6.8%, 2010년 7.5%, 2011년 7.5%를 기록한 데 이어 2012년 7.2%로 다소 감소

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
영업이익률	5.9%	6.8%	7.5%	7.5%	7.2%
증가율	8.7%	14.8%	10.9%	0.3%	-4.9%

※ Source : 국가통계국

□ 중국 인삼 주요 생산 지역

- 중국 토종인삼은 대부분 길림성에서 생산되며, 길림성의 생산량 점유율은 85%를 차지 ⇒ 이 밖에도 흑룡강성, 요녕성, 하북성, 산서성, 감숙성, 영하자치구, 호북성 등지에서도 재배
- 2012년에 중국의 인삼생산량은 2억3500만톤의 생산량을 기록 ⇒ 이는 전세계 생산량의 70%이며, 그중 길림성 인삼 재배량은 2억톤으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의 85% 정도를 차지
- 중국 인삼생산은 아직 영세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⇒ 인삼 생산량 70%가 농가에서 이뤄지며, 대형화 집적화된 생산 및 경영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
- 인삼관련 기업 역시 뚜렷한 1위업체가 출현하지 못한 채 약 5000여개 기업들이 난립 ⇒ 5000개의 업체 중 길림성에 1000개 업체가 분포
- 중국에서 판매되는 서양삼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공재배 형식으로 재배 ⇒ 서양삼은 연간 400~450톤 가량이 생산되며 세계 총생산량의 6%를 차지 (동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)

□ 최근 생산 트렌드 ⇒ 80%가 기타제품 원재료로 사용

- 신규 재배지의 발굴과 승인이 어려워졌으며 인건비 등 원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재배지역 및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
- 생산되는 인삼들은 80%이상이 기타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어지며 약 15%정도만이 원지삼, 뿌리삼, 절편 등 인삼약품 및 인삼 제품으로 제조되어 시장에서 유통

□ 연해지역이 주요 소비처

- 제품생산은 동북지역이 이루어지나, 소비는 상해시, 광둥성, 절강성, 장쑤성 등 비교적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이 대부분
- 덥고 습한 지역에서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원기가 부족해지며, 이 같은 기후특성에 더해 경제적인 구매력이 뒷받침되기에 남부 연안지역에서의 인삼소비가 상대적으로 원활한 편
- 이들 지역의 인삼소비자들은 인삼절편을 선호하며, 그 다음으로는 인삼채, 인삼차, 인삼근 등을 구매

□ 한국대비 원지삼을 선호하는 소비성향

- 중국 인삼 판매 중 가공되지 않은 상태인 원지삼의 비중이 40%를 차지 (인삼을 가공해 만든 건강식품 소비량은 60%)
- 하지만, 인삼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인삼추출액이나 인삼절편, 인삼주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이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은 그 절반이 해외 인삼기업에 수출됨 ⇒ 주요 수출국은 같은 동양문화권 내인 한국과 일본
- 한국 제품은 홍삼 위주로 중국에 수입되며, 중국의 백삼 수입 물량은 그 비중이 낮은 편임
 - 한국 제품은 인삼과 홍삼 외에도 인삼분말, 인삼차, 인삼고, 인삼음료 등의 가공식품 형태로 수입됨